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님께서 ‘영아, 이 다음에 크면 목사가 되지 않을래?’ 제가 장남이어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여러번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죽어도 싫어! 난 죽어도 목사 안해!’

그런데,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아, 신학교에 가지 않을래?’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될 텐데, 에이, 내가 잘못들었겠지’ 했죠. 그리고 그 때는 ‘신학교는 다른 거 다 하다가 안되면 신학교 가거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라는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더 싫었죠. 그리고 사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 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구요,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신 꼭 성공해서 나중에 현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다니는 사람이 성공했다면하면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했었습니다. ‘난 죽어도 목사 싫어!’ 했던 저였었는데, 목사를 한다...? 그게 쉽지 안잖아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마음 속 깊이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영아, 목사가 되지 않을래?’ ‘전 죽어도 목사는 못합니다.’ 했는데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있는거예요, ‘이 길은 죽으면 할 수 있어! 죽어야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제 아내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크면 그냥 웬지 목사하고는 절대 죽어도 결혼 안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목회하셨던 아버님을 지켜보면서 ‘목회가 참 힘들고, 가족들은 외롭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주중에도 예배 인도, 성경공부, 심방등으로 늘 바쁘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까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사생 대회에 학교 대표로 시대회 전국 대회에 나가서 항상 미술부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운동장에서 조희가 있었는데, 실외조희가 열리면 제가 상받는 날이구나 생각했더랬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과학상자 조립대회 라디오 조립 경진대회가 많았었는데, 라디오 조립 경진대회에서 학교에서 1등하고, 인천시에서 2등도 했었습니다. 노래도 곧잘 해서 초등학교때부터 학교 대표로 노래도 많이 불렀고, 중학생때는 사람들 앞에서 플룻 연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음악전공하라고 하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 전공하라고 하시고, 미술 선생님은 미술 해야한다고 했던 때였으니, 저 스스로도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우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지라, 부모님의 요구에 하는 수 없이 출석만 했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3부 행사 안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만 궁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말씀도 가끔씩 교회에서 읽거나, 부모님께 용돈 타려고 읽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최영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는 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때 그 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였구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맘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깨닫고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 잘나서 잘하는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 즉,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것인양 생생낼 수 없는것인데, 내꺼라고 여기고 살았으니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반에서 착한 학생 뽑으면 자주 뽑힐 만큼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은연중에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팔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않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 장 19 절과 20 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성경에서 찾아보면 [팔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말하는 자유, 숨김없이 말함” 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떳떳함의 근거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7 월달 설교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성막은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죄많은 인간을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크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어주는 장소였습니다. 상징적, 제한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성막을 아무나 혹은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라고 하면 ‘거룩한 곳’ 이라는 의미이죠. 성소 내부 중에서도 특별히 휘장(curtain)으로 구별된, 대제사장만 일년에 한번 그것도 잠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The Holy of Holies’ 이라는 의미의 ‘지성소’ 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휘장(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 문헌에 따르면, 이 휘장의 두께는 8~9 인치 (약 20 센티, 매우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 높이는 60 피트 (약 18 미터), 넓이는 20 피트 (6 미터) 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크고 높고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 벽이 높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 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거예요. 그래서 그 수 천 년 동안 금기의 장소가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앞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에서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즉, 대속죄일이란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죄사함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 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죠.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면 참으로

놀랍구요,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큰 은혜가 담겨있습니다. 회개는 헬라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그 본 뜻은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면 죄, 도둑질하면 죄, 살인하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뜻은 [하마르티아] missing the target 즉, 인생의 목적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어요! 하지만, 참된 회개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의 목적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매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사함을 받고, 22 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2 절에서는 믿음을, 23 절에서는 소망을, 24 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꼭 붙잡았던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10 장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 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꾀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도 서로 사랑과 선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꾀해주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대목이 나오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 19 때만 그런게 아닌가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모이기를 폐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 은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종말론 대 말세론**

먼저 말세론에는 2가지 현상이 있는데, 1.두려움 2.자포자기

1.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 ‘어떡하나? 지금까지 피땀흘려 이룬 것들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만 남겨지고 버려지면?’

2.자포자기: ‘될 때로 되라. 말세야 말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반면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 있으라’ 는 주님의 음성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기쁨의 날이요, 구원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묵묵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내 고집 내 뜻, 기본대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죄책감으로 나오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오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페어필드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성경말씀 배우기를 힘써서 하고, 참된 섬김과 나눔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께 시온의 대호가 활짝 열려있는 복된 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